

정신질환 가정주부 세 딸 13층서 내던져

아파트서 20개월쌍둥이 등 차례로...자신도 뛰어내려

96.5.31

후송중 모두 사망

정신질환을 앓던 주부가 13층 아파트 층계 창문으로 자신의 세 딸을 잇달아 내던진 뒤 자신도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30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 은평구 신사2동 140 미성아파트 2동에

서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주부 김형신(30·은평구 응암2동 617)씨가 자신의 생후 20개월 된 쌍둥이 딸 안진경·선경양과 장녀 은경(8)양을 12층과 13층 비상계단 사이 창문을 통해 30여m 아래 아파트 바닥으로 차례로 떨어뜨린 뒤, 곧 이어 자신도 뛰어내려 목숨을 끊

었다.

김씨와 세 딸은 주민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기던 중 모두 숨졌다.

아파트 경비원 이완식(62)씨는 “경비실에 있는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 나가보니, 김씨 등 4명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김씨는 쌍둥이를 포대기와 멜빵으로 안고, 큰딸을 데리고 있다가 창문으로 차례로 딸들을 내던진 뒤 자신도 층계에 놓인 휴지통을 밟고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쌍둥이를 낳은 뒤로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김씨가 친정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집에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착란을 일으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가정불화를 비관해 동반자살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남편 안아무개(29)씨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희승 기자